살구, [30.01.19 23:52]

2:00 빈고 전체회의 시작합니다.

평가와 계획 페이퍼 돌렸어요.

살구

자기 : 은평 평집 공동체활동가 , 빈고 회의 처음 참석

수수 : 빈고 정관 만들기 모임 - 반폭력규약만들기, 국경을 넘는 계모임.여행경비 모으기

날맹 : 들 공동체 활동가로 왔어요. 이 공간으로 온지 1년되었네요. 들 총회랑 날짜가 겹쳐요.

성재 : 빈컴퓨터가게 활동하고 있어요. 작년에 너무 일이 많아서 좀 쉬고싶은 정도. 소모적인 일보다 건설적인 일 하는 한해를 기대

부깽 : 운영활동가에요- 홈페이지 담당하고 있어요. 가끔 바짝 일하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는 홈페이지로 만나지요^^

지음 :저녁에 홈페이지 사용법 설명이 있겠습니다.

서원 : 빈고 상임활동가입니다. 빈고폰으로 전화하시면 저랑 통화할수 있습니다. 총회 준비하면서 1년 결산 작업중 생각이 많아요. 부족한 부분 확인되고요. 잘한 것도 확인되어요.

많은 의견 주셔서 10기 운영에 반영될수 있도록 .

지음 : 오늘 계획은 여러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모이기가 총회 말고 한번정도. 활동가들이 모이는 자리가 작년 여름 잘 안되서 1년만에 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빈고의 상황을 점검한다라는 의미로. 빈고가 공동체들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워낙 만나기가 힘든 상황이죠. 저녁에 사람들이 좀더 옵니다.

공동체들의 상황 공유하면 좋겠어요.

안건의 경우 쟁점이 많을까요?

올해 어떤걸 해볼까라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야기할수 있으면 좋겠다.

숫자에 홀리지 말고 숫자가 말하는 의미 정도만 보고 올해 뭘 해볼까를 얘기해보면 좋겠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궁금한게 있거나 다른 기대가 있으면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신규공동체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이 50분정도 잡혀 있고..

날맹 : 홈페이지 너무 궁금해요!

지음 : 활동평가와 계획은 나눠준 종이에 각자 작성해보고 나중에 공유? 빈고 브리핑이 필요한가요?

총회 자료집 보고 부분 5분 발표 서원이 해주셈.

서원(지음)-브리핑 : 조합원수 늘고, 출자활동이 크게 늘었음. 빈고역사사 가장 폭이 큼. 48명 신규. 384명현재 조합원수. 녹색이 의결권있는 조합원.

공유지현황 이번에 분류를 좀 나누어봤음. 공유지와 활동 공동체로 나누었어요. 상임활동가 회의 11회, 운영활동가회의 9회, 공동체회의 6회- 공동체 직접 찾아가는.

빈고는 회의 많이 하는 곳 중 하나에요.

총회준비를 위한 5차례 회의 진행했어요. 오늘이 5차 회의. 감사할동 지난주 했어요.

교육활동 지음이 중점. 꼬뮨뱅크 워크숍, 책읽기 모임, 대외활동(NPO국제 컨퍼런스), 홈페이지, 페이스북

빈고 출자 큰 변동은 없었으나 자산조정이 있는 정도임.

차입-빈집 계획에 따라 준비한 금액(예치금)

연대활동-지구분담금 1년 예산중 거의 사용했고 적립금이 여유 있음.

공동체기금- 신생공동체 활용, 펭귄조약-시범적 사업인데 조합원들이 잘 알려져서 사용 미진

[활동평가]- 5인대표체제, 총회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난 상황. 회의 참여자수가 확보되는 상황이 좋았음.

텔레그램 의결상황-무응답을 기권처리하고 있음. 무응답이 반대인의견이 포함될수 있는 것들이 반영 안되는 것.

의결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들. ==> 빈고 홈페이지를 통한 의결을 할 예정임.

공동체 회의- 의결단위로서 상정했으나 만남의 자리의 성격상(첫만남, 서로 소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지역회의로 변경 고민.

운영활동가모임 - 편하게 만나자에서 실무회의로의 성격으로 역할함. 상임논의 사항들을 같이 검토하는 역할도 함.

상임회의- 온라인 회의가 많았고, 2인회의 체계 아쉬움. 상임활동가 추가 고민.

공동체활동- 주거공동체가 줄어든 상황. 공동체 활동가의 잦은 교체, 활동에 대한 숙지가 어려운 상황. 빈고 소통이 어려워지는 결과.

공동체소속이 아닌 개인조합원의 증가. 출자활동열심.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개인과 공동체.

출자활동 - 출자를 1만빈에서 1빈 단위로 바뀌면서 조합원간 이체가 아주 많아짐. 빈빵 서비스 애용됨.

이용활동- 이용활동에 대한 이해 없이 이용신청하는 경우 . 이용자별 상황 검토가 쉽지 않은 것들. 상임활동가 전담 상황이 어려움. 이용활동 점검과 고민 어떻게 할것인지 같이 고민해요.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계속된다. CRP 중단된 상황.

빈고정관만들기모임- 정관초안모임, 반폭력규약만들기 모임으로 전환된 상태.

파란색 텍스트는 아직 미진한 부분입니다.

연대활동-공동체기금 역시 아직 어려운 상황. 이용자배당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부족, 활용할 방법에 대해 고민합시다.

브리핑 후 활동 평가와 계획 각자 써보고 3시 다시 시작해요.

[평가와 계획]

오디: 출자 꾸준히 할게요. 골목쟁이네 이용했고 19년 반환목표로 합니다. 연대 평집이랑 친하게 친하게 지낼게요. (그게 연대에요? ㅎㅎㅎ)

운영- 빈정모임 계속될 예정. 반폭력모임도 계속 될 예정

성재 : [빈컴퓨터] 2018년 출자를 못했고, 출자를 위한 모임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아이티 기반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하다보니. 지난해 평가하고 나니 출자를 늘리는게 좋을수도 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쁜놈들을 위한 기반을 주어야? 지난해 큰 사건과 관련되었는데 양/파일공유 사이트랄지. 수사라든가 단체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도움을 주었으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공적으로 가져가는 상황. (우리의 도움들을). 온라인 성매매 등 관련 건들 하려고 했으나. 실제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용만하여 소모당한 측면이 있었음. 올해는 출자금을 벌어야? 파일공유 문제로 불법적 상황이 좀 있었고. 현금성 무기명 결제시스템? 비밀보장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팔아서 돈벌 생각중. 그것으로 빈고와 빈마을에 기여하는 것. 출자 늘리고. 반환도 하고.

지각생. 수희씨와 빈컴퓨터 공간 운영. 나진 상가가 팔려서 사적인 공간으로 변경. 컴퓨터판매로는 운영어려움. 수익사업은 서비스 사업으로 할 생각.

작년 은평 작은공간 청소년고아들의 (마치 수용소) 생활하는 상황에서 방과후 활동 공간임. 게임용 피씨 두대 지원.

보증금 이용, 이용반환하려는 이유는 공간이 점점 같이쓰는 공간이 아닌 상황. 공간을 쓸 이유가 거의 없는 상황. 순차적 이용금반환하려고 함.

네트워크 활동형태로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임. 빈 컴퓨터텔레콤. 별정통신사업등? 고려중. 19년 올해 목표는 빈컴퓨터노트북 보급

영길[공룡] : 보선빠진 이후 작년 시스템 바꾸는 작업 18년동안. 사회적기업 들여오면서 하려했고. 12월에 지원이 처음 되었음.

이번주 결산하고 있음. 공룡 수익이 주로 영상이었으나. 다큐만들면서 이 수익이 멈춘 상태로 1년 지난상황.

다큐 끝나고 뭉클하면서 재정집중해서 모아서 하려고 하는 상황. 19년 상반기 빈고 이용금을 털어보자고 하는 중. 19년 4월정도까지.

공룡의 영은이 휴식년. 유급휴가 서울에서 학습 예정. 영은의 역할을 설해와 재환이 받기로 한 상황. 인수인계 예정. 재정결산중.

빚은 빈고에만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반환하고 공간부분만 남기자. 개인빚들도 털자.

3년지원동안 적금해서 5~6년 활동비를 마련해보자. 출자든 입출금형태든. 활동가 늘어날 예정은 없어서.

카페를 접을까 고민중. 실제로 카드계산때문에 있었는데 사회적기업이 되었으니.경제활동은 뭉클로 다 뭉치고. 카페를 사업자 닫고. 뭉클로 집중

농사는 영길 혼자라 밭을 하나 줄인 상황. 나머지도 규모 고민중.

재환 프로듀싱해서 앨범내는 작업계속. 설해 가마가사키 영화 배급사 활동, 다큐 상영중이라 800에서 1000정도 모임(수익금), 다큐 더 만들자 ?????

사직동 올인하자. 잡지도 만들고. 연대사업외에는 무조건 마을 중심으로 해보자. 마을이 5~6년 안에 재개발일거라. 불편한 것을 모아보자.

2월 말쯤 워크숍 인수인계할 예정. 빈고총회때까지는 어려울것. 12월말 결정은 보증금 빼고 일단 반환하자.5~6월까지는 들어오는 돈은 다 털고 이후에 모으는 형태로

변동가능성은 지역에서 영상하는게 우리밖에 없어서 김용균, 유성 등 영상작업이 많은 상황이긴 함. 재환도 공연할 가능성이 많아서. 연대사업이 너무 많은 상황.

자기 : 쌈짓돈 잘 활용했으나 반환 어려웠어요. 은평집 이용계획서 쓰고 나서도 출자 어려운 개인 상황.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평집 포화상태였다가..요즘 급 줄구있네요.

수수 : 출자 간헐적, 출자 이유가 국경계에서 빠져나가니 보면서 출자하게 됨. 빈고살구, [30.01.19 23:52]

출자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질문, 고민하려고 합니다.

출자독려에 이런고민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19년 어떻게 살지 고민중이에요. 수입이 정기적이 되면 더 정기적으로 출자할게요.

빈고의 이용의 의미 아직 감이 안잡힘. 빈고 사용설명서 만들기 제안을 받았는데 이용에 대한 설명등에 더 얘기 해보고 계속 해보자.

이용분담금 사용 후 보고 못했네요. 졸업해라서 연대활동도 부족했네요. 빈고정관모임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빈고에대한 고민하고 있어요.

텔레그램방에 안 들어가있어요. 확실히 빈고 움직임이 잘 안느껴지네요. 홈페이지에 의결을 보여주는게 생기면 상황알기에 좋겠네요.

부깽 : 출자, 벌이가 없네요. 홈페이지 의결시스템은 다 있어요. 로그인하시면 볼수 있음. 조합원들만 볼수 있는게 있고요. 텔레그램에 없는 분들도 확인하고요.

홈페이지 계획은 회원디비와 조합원디비를 통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제통합 방식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고쳐야 할게 많아요. 19년 한해동안 이 작업을 하게 될거 같아요.

서원 : 없는 형편에 혼신을 다한 출자. 설명회 등 다녀보니 아직도 머뭇거리는 돈이 많으니 문턱을 낮게 해보자. 19년 계획은 일자리 구해서 안정적으로 출자해보자. 빈쌈짓돈 편하다. 키키로부터의 영감. 앞으로 거주 계획(삶의 형태)에 대한 고민. 올림픽반대연대 활동 계속 될듯. 상임활동가 기본업무에 급급했음. 재밌는 상상, 기획 기회 적었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보는 쪽으로. 군대가겠다던 선언은 어찌하나. 사용설명서-빈고정관만들기팀과 소통하여 만들기 시도!!

날맹[들] : 들에서 빈고 설명하기가 어려움. 공동체은행에 대한 설명 쉽지 않네. 들이 너무 바빠서 설명회도 못하고. 여윳돈 출자하려고 노력. 출자가 어떤 의미일까?

빈고와의 거리감들. 빈고의 정체성과 일치감 아직 어렵고요.

한돌 : 출자하고 최대한 반환안하려고 하지만 반환하게 됨. 19년에는 주기적 출자 하고 싶어요. 반환 없는 한해가 되기를. 이용은 ….밴드를 시작해서 이용할수 있게 되려나?

19년 연대와 투쟁!!! 빈정, 빈둥 등 운영에 어떻게든 참여하게 되겠지요!

준 : 빈빵만 하면서 지냄. 입출금 시간 확정하는 것이 좋을것 같음. 빈집내부 구성원 빈고 오랜 조합원이 줄은 상황이 빈집과 빈고의 관계에 대한 논의. 한편 교조적이고 한편 나이브하다. 빈집 구성원의 변화가 많아서 빈집에서 활동하겠다는 전무. 어떻게 살까? 논의들이 처음으로 돌아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정훈 : 활동은 책모임을 계속 했었음. 빈고조합원 외에도 참여. 작은 단위로 하고 있고 재밌음. 출자는 늘린다고 했으나 여전히 잘 못하고 있음. 항상 빚이 있는 느낌? 우리 은행을 키우고 싶은데 말이지. 이용- 예전 활동하던 친구들이랑 먹고 사는 것을 자립해보는 것을 시도해볼 생각. 잘되면 빈고를 통해 진행을 해볼까.

지음 : 키키를 위한 출자를 위한 회사 생활. 수입의 10프로 출자 계속하려고 합니다. 은행대출없이 집 짓는 것이 되서 괜찮지 않나? 정도 생각. 서원이 영감 받았다니 좋다. 올해도 이용여지가 많이 있으니 이런저런게 있음 좋겠고. 땅을 더 살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유가 될지? 지구분담금 여유가 있어서 기획에 따라 통큰 것도 가능. 상임활동- 일과 키키와 상임활동 병행이 쉽진 않았다. 빈고 전체적 일정 누군가는 계속 잡고 있어야 하는데, 일정관리 회의준비 등이 어려웠음. 조합원, 공동체 활동가들과 만나는 것이 연락하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다. 교육 계속 하고 글쓰기 시도 하려고 합니다.

[오후 4시 20분이 되었어요]

지음-

총회 자료집 보시면 일반적 내용들은 매년하는 평가와 계획이 안건에 있고요.

기타 안건- 이번 총회에 얘기해야 할것들.

반폭력규약

장기 이용활동 종료처리 -

공동체조합원 규정 추가

건강계까지 4가지 기타안건으로 있습니다.

다른 안건들이 있는지 확인합시다.

오디 : 표에서 궁금한 것

5페이지 결산안 사랑채로 표기된것 밝은정원으로- 수정 , 상호부조기금 관련 남아 있는 비용- 집행 아직 안된 것.

19년 사무실임대료??- 예산 잡아놓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공유지운영계획 간단 설명

조합원 출자 300빈 예상, 조합원 이용을 200정도. 공동체별로 큰 출자나 이용계획이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

부산 - 이용반환 마무리. 계획 없음.

모두들 - 새공간 이용계획 작년부터 2000정도 매달 밀리고 있는 상황.

명륜동쓰리룸- 계획 없음

빈컴퓨터 - 반환계획

공룡 - 반환 계획

홍성 키키- 1월 추가 이용 마지막으로 반환계획.

이룸 - 이용계획

신생공동체는 가정한 내용입니다.

2억5천 최대한입니다. 1억5천정도 예치금.차입자 추가 차입 가능한 액 5천. 기타 - 키키 담보대출 예상액

월별합계와 여유자금 변동을 보는 것. 여유자금 마이너스가 안되게.

주요출자자 - 고액 500이상 출자자 반환계획 올해 없음.

최대 동원가능한 금액을 예상.

현재 여유자금이 너무 많다. 차입이나 담보대출외에도 1억5천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다.

이것들을 활용할 계획이 필요하다. 당장 신규공동체 공유지 없더라도,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오디 : 빈집 하나만 있으니 공용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카페가 있을때 좋았다.

성재 : 은평구 고양이 카페가 사라지고 있다.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들. 맹지나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역 자치 단체 소유의 저렴한 땅들에 고양이 아파트? 어떨까?캣맘이 많지만 지역사회내에서 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되는 상황. 마중물을 해줄 역할. 사람은 쓸수 없지만 동물은 쓸수 있는 곳들. 지역단체/동물보호단체들과 해서. 오수처리 등

온지곤지/밝은 정원 끝 예정 - 해방촌에 하나도 남지 않는 상황.

적극적 계획은 이룸, 모두들 정도!

자기 : 트랜스젠더 일공간이 없어서. 작업, 자영업할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지음 : 공유지가 공간 뿐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구성하느냐의 문제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해봅시다.

빈땅 구입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서원 : 매입의 필요성을 느껴요. 뿌리내리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면 좋겠다.

성재 : 캠핑유행 후 빈땅 사기가 너무 어려움.

지음 : 작년부터 1억정도의 여유금이 있으니…부천쪽에 모두들과 함께 매입 또는 전세 어떨까? 꿀잠 근처에 마련하는것은 어떨까?

날맹 : 투명가방끈 활동들 - 사회주택 알아보고 있는중.

수수 : 오랫동안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거북이 하우스 없어짐. 열악한 상태였어서.

정훈 : 집을 그렸는데 여러개의 방을 그렸더라.

지음 : 사회주택 사업 여러가지 지원이 있는듯 한데. 토지임대부이용. 우리가 직접안되면 같이 할곳들을 엮어서.

[19년 예산안 훑어보기]

정훈 : 새로운 공유지와 관련 공모전을 해보는거? 심사도 같이 해보고 총회때 같이 결정하는. 새로운 것을 하게 됐을때 공모전 상금 같은걸 얼마 준다는 것.

수수 : 자세한 내용 설명이 어려워요.

지음 :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려면 알려주세요. 했으면 좋을것들.

광대 : 추가활동계획 , 두물머리 요왕조합원 CSA처럼 그냥하면 손해 될것 같고. 사업비로 택배비를 지원할수 있는가.

지음 : 출자 여력이 없어서 현물로 출자할수 있는가. 그렇다면 조합원들에게 공급을 하고 돈을 요왕아저씨 출자금으로 모아주는.

광대 : 빈고 조합원을 상대로 자그마케 CSA를 해보자. 정도.

수수 : 빈고 정관 -반폭력규약만드는 모임. 통과 후 관련 워크샵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예산. 등.

[반폭력규약]

수수 : 초안입니다. 그대로 따온것들도 있고요.

 브리핑

성재 : 규약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보험사의 규약과 행정처리 어디쯤 중간에 있다는 느낌. 보험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과 비슷한 규약.

대상 명확히? 조합원과 조합원 사이의 규약이라면 이렇게 하자~! 내용이 있어야. 피해와 가해에 대해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공동공간에서 이런것은 지키자 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피해가 일어났을때 이렇게 하자보다는 피해를 주지 않는 규칙을 ~~~게 하자가 있는것이.

수수 : 의견을 받고 얘기를 하는게 좋을지요?

부깽 : 오늘 어느정도까지의 논의나 총회까지 어떻게 까지 한다. 한해 고민을 할것인지.

수수 : 총회에서 초안을 공유하고 워크샵을 하게 되는것을 할지.

다음 총회까지 가져가서 통과 하는것?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부깽 : p샵 계속 했으면, 좀더 많은 피드백 있었으면 좋겠고. 총회까지살구, [30.01.19 23:52]

일정은 너무 빠듯. 좀더 준비해 보는게 어떨까?

러프한 동의는 할텐데. 빈정 회의 유지해왔던 사람들 외에도 참여할 기회 더 만들고.

영길 : 개인조합원이 많긴해도 공동체들도 많기 때문에 빈고에 맞게 손을 많이 대야 하지 않겠냐?

빈집 해방촌에서 비슷한 것을 작성한적이 있지만. 공동체 만들때 이 내용대로 워크샵 다 진행안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의무교육해도 잘 하기 어렵지 않겠냐.

빈고 가입할때 숙지하고 싸인한다 해도 실질적인 계속적인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들이 어떻게 실현할지 고민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전체 차원에서의 강제성을 논의. 개별 조합원들과 주거공동체 얘기 중심의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동체별로 다른 규칙이 다를수 있고, 공동체에 적용할 규칙들 고민 필요하고.

문제 해결 방식도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터진경우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안되면 모르겠는데…해결능력이 공동체에서 생기려면.

전국단위에서 붙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니...폭력과 관련된 해결 방법은 공동체별로.있을거고. 만드는 것.

수수 : 오해? 공동체 자체적으로 먼저 꾸려져야 한다. 연대해결부분. 공동체안에서 해결이 안됐을경우 피해자가 요구 했을경우.

가령 빈집 같은 경우 자체 대책위했고. 빈고에 요청했을때 교육을 하고 등등. 빈고의 지원의 문제.

정훈 : 멤버쉽 개인과 공동체. 어떻게 할수 있지? 활동 금지 등…징계의 방식이 어떤지.

이것을 맡을 수 있는 기구로서의 것이 있으면 좋겠다. 각 공동체 안의 규칙들을 모으고. 빈고가 그걸 협의할수 있는 정도?

이 고민이 계속 가야한다는 부분은 동의.

성재 : 개인적인 작년 경험을 이야기하는 중…(살구 ㅠㅠ기록은 어렵네)

날맹 :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소감을 간단히 하고. 계획을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영길 : 공동체들이 각각 논의해서 가져와서 해보자.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 각 공동체들이 문제의식을 어떻게 할것인지 고민해와서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개별 조합원은 서울에서 별도의 자리를 만들고. 여기서 계속 얘기되면 정해지고 내려가는 방식 밖에 안되니까.

수수 : 조합원들에게 강제가 되는 내용이 없다. 공동체들에게 하달되는것이 없는거 같은데.

영길 : 공동체들이 적극적 내용 받는 것이 필요한데. 주거공동체는 생활규칙에 정해서 풀수도 있고, 등등 색깔이 다르니…구체적으로 논의해보자. 개별조합원들한테는 어려우니.

지음 : 법을 만드는 건가요?

수수 : 어떤 법을 만드는 것이기도.

지음 : 법을 만드는 것은 강제가 되어야 하는데. 영길샘, 성재씨…이런것들이 다 규약이 실제로 힘이 별로 없는데 우리끼리 약속인데 약속을 안지켰을때 강제성이 별로 없는.

규약은 법과 좀 다르지 않냐. 법은 정밀하게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되는데 규약은 이렇게 하자고 논의를 하고 이랬을때 이렇게 하자는 약속의 과정이 없으면 힘이 없는 것이 된다.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너무 길다. 첫인상이 길다. 수수도 말한 것처럼. 별거 아닐수 있다. 피해를 입었을때 공동체에서 안瑛뻑� 빈고에 도움을 요청할수 있다. 라는 거면 양은 훨씬 줄어들수 있다. 이 세부적인 내용들어가면 다 동의할수 있냐. 전체적 얘긴 좋지만. 이 내용 세부적인거 까지 규약에 넣어서 총회에서만 바꿀수 있다고 하면 오도가도 못할 가능성이 많다.

잘 모르겠지만 대책위는 총회, 정관에 한두줄로 정리 될수 있는거 아닐까? 대책위 구성하고 사건에 따라 활동할수 있다.

정관 자체가 없으니 좀 더 필요할 수 있지만 좀더 압축할수는 없을까?

수수 : 빈고가 그랬음 좋겠다 했음 받아드릴수는 있지만. 보통 다른 단체에서 이정도 하는 경우는 많다.

빈고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할수 있겠다.( 공동체 만드는 것들…)

부깽 : 어떤 단체들별로 내부적 해결들 원칙에 따라서 하면. 지금 디테일하게 있는데. 그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냐. 내규가 지향하는 바만 있어도 사안에 따라 가능하지 않겠냐.

나루 : 개인조합원이 규약에 어떻게 동의하고 인식하고 이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

영길 : 논쟁을 붙은 이야기는 아니고. 만들어지는 과정 만들때까지 힘을 받는 것. 이후에는 힘을 갖기 어렵다.

교육을 받으래도 안받고. 문제 터지면 탈퇴해버리면 그만인데.규약을 당장 만들게 아니면. 이걸 공룡에서는 한번쯤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활동가 사이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조합원들 문제생기면 탈퇴해버리면 그만이니.

수수 : 길다거나 대책위부분 땐다면… 되는거 같은데. 내규를 만들어서 반폭력이나 평등 얘기를 해본적이 없다.

내규를 만들자는 것인데.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하자는 건데. 내규가 실효성이 없다. 내규를 만들어도 안될껏이 뻔하다. 이런...

지음 : 논의하는게 내용을 토론하기 지금 어려우니, 형식적인 이야기를 할수 밖에 없고. 총회에서 어디까지 다룰것이냐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이번에 통과를 하든 못하든. 반폭력 활동가 두는 것 내규랑 상관없이 할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 왔고. 반폭력활동가 활동할때 지원할 것 하는 거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오디 : 힘들것 같다.구체적인 걸 얘기해주면...

하루 : 개인조합원?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규약문 안올리더라도 조합원간 공동체간 얘기를 많이 하고 가능한 모두가 합의할수 있는 규약으로 만들자.

한돌 : 아니라고 하지만 어렵다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워크숍도 하자는 이유가. 저희만의 규약을 만들자는 건데. 들을때. 그렇게 들리네요.

나루 : 총회 승인여부로 들어가게 되는. 그 흐름들을 만들어오는 과정이 있어서 동의수준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

규약이 지향점만 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활동수준 디테일하기 때문에 이거대로 가자는 강제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는 상황을 처음 듣게 되는 상황이라.

왜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누는 자리가 필요한 것.이것이 생략된체 문구가 적용방식에 대한 것들이 나와서 논의가 방법적인 것들로 흐를수 밖에 없음.

부깽 : 지향하는 바를 표명하고,

[저녁 후 공동체활동가 교육]

공동체 책인자 3인 이상 유지 신경쓰시고. 공동체 활동가 1인 인수인계 빈고에 꼭 알려주삼.

공동체회원 명단 관리 : 공동체 회원일때 이용가능한 서비스가 있으니

공동체 확장계획시 : 예상 아이디어 발생시 알려주시면 좋다.

공동체 회의/지역회의 같이 준비해주심 감사

지구분담금을 활용해서 활동에 대한 돈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1회씩 1년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소개 - 내용 작성해주시면.

공동체통장 내역 조회는 공동체활동가와 지정한 조합원정도 조회 가능.

의결게시판 활용

조합원가입, 회원가입 통합이 올해 사업.

방문객수가 20~30명 정도.

개인출자와 공동체 통장 확인 할수 있으니 잘 활용해주세요.

사 : 소속공동체 마이페이지?

지음 : 지역?

[저녁 중간 휴식후]

공동체 활동 평가와 계획

[레드북스] 수피아//염

계획은 너무 많이 나와서 무엇을 할지 얘기중이고. 김호철 파업가 30주년 기념 일제부터 지금까지 저항음악 �어보기 살롱 기획. 서정민갑등 평론가와 토론 등등

이 큰기획이고.

북클럽 요즘 고가 북클럽을 벤치마킹해서 할수 있을까?

운영진이 각자 관심있는 것들로 운영해볼까.

평화관련미술책, 비건, 여성, 음악, 환경 주제 등등으로.

상품권을 만들었습니다.

회원이외에도 10프로 할인가격으로 파는 상품권입니다.

[온지곤지] 나무

교육집중하기. 교육협동조합 만듬. 법인등록 와중에 재계약이 어려운 상황이 되서.

우리실험자들로 공간이동을 하기로. 교육협동조합 온지곤지. 2월 7일 이사.

집기 정리. 앉은 뱅이 책상 필요하신 분 드려요.

책도 많이 남아 있어요. 만화책 남아 있어요. 텔방에 공유할게요.

[골목쟁이네] 우더

골목쟁이네 2명 거주와 단투(분담금없이), 보드겜하고. 평집이랑 가까운 거리여서 왕래중.

19년에 새로운 사람들과 나누는 고민을 하고 있음. 어떻게?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고. 시도 많이 할게요.

[나루]

대표활동가.

[사]

평집에 살고 있고. 건강계 유사. 운영활동가. 빈집 확장 계획 예상됩니다.

15명이 장투를 하면 5명을 새집으로 보내서 만든다.

건강계 활동 아쉬움. 19년 유사. 20년 유사를 찾고 있음.

[정훈]

새로운 사업 기획중.

[하루]

대표활동가. 19년 연임하자. 지구분담금. 요왕농부님 농산물 이야기.

[광살구, [30.01.19 23:52]

대]

해방촌사람들 공동체활동가. 공간이 사라지는 상황. 사무실 찾는 중. 경의선공유지 얘기중(면접). 최소한의 멤버십 유지하고 있음.

올해 무엇을 할지. 해방촌은 정리-만들어보자.

[동네공간] 반바지

작년에 변함없이 공간유지. 마이너스 이용을 빨리 반환하는 것 목표. 공간정리. 재배치했음. 공부모임을 하면 어떨까 정도 얘기중임.

[따로또같이] 임차료와 보증금 깍아서 유지. 계약 연장. 꾸준한 출자.

[밝은정원] 나마쓰떼

구성원들 거취변동. 공간정리 예정. 4명중 1명 해방촌에 남는 상황.

지음 : 공동체들이 함께 계획을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각각의 공동체들의 출자와 이용계획등을 함께 고려해서 여유자금이 1억5천에서 2억5천수준

[어느새 저녁 9시 10분]

자산 5억. 하늘색 조합원 출자금. 파란색 차입금. 주황색 적립금들.

자산 배분이 녹색 공유지에 들어가 있음.대략 60프로. 예치금으로 나아있는 빨간색. 파랑색 공동체활동이나 회원들 사용중.

수입의 구성은 공유지들에서 나오는 분담금이 전체의 70프로정도. 조합비, 예치금 이자수입.

수입 배분 활동비 녹색 보통 25프로였는데 전체수입이 줄면서 비율이 늘어났음. 비용이외의 잉여금을 어떻게 분배할것인가.

1. 잉여금 처분

작년에 출자배당 조금 높았지만 올해 1.7프로 정도로 낮추는 정도.

지구분담금/공동체기금은 해마다 남는경우 이월.

잉여금 분배는 배당이지만 소유권은 다 이관 되나 여튼 전체 빈고 네트워크 안에 있는 상황이다. 지구분담금이나 공동체 기금이 쓰여지면 나가는 것.

은행이자보다 적게 출자지지금을 형성해 왔으나.

2. 조직구성안

상임회의 월2회, 텔레그램방 운영, 의결권 24개정도. 홈페이지의결과 함께.

공동체회의를 지역조합원모임으로 전환하는 것.

운영회의 월1회 대표/상임/운영활동가 안건검토, 재정공유, 사업계획 평가활동 할 예정.

전체회의 : 아직 구상중. 연 몇회?

변경내용 : 상임회의 3인활동을 해보는 것.

공동체회의 의결권을 공동체와 지역의 조합원 결합.

전체회의 : 8월 중간에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표활동가들 1년 더 하자.

상임 활동가 회의 일정 공지해요.

예산안 관련 :

새공유지로부터 300정도 수입 예상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최대한 줄였으나.

잉여 예상이 500수준.?> 19년 배당 어려워짐.

상임활동 업무를 좀 나누는것 어렵지만 할수 없을까? ?니름 뉴스레터 고민중이에요.

공유지계획 - 이용계획, 출자계획 돌아가셔서 얘기해보시고 총회까지 더 얘기해주세요.

금액을 많이 하자는 계획아닌, 0이든 -(마이너스)이든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제명자 건과 관련해서.

3. 장기이용활동 종료처리

대손처리의 문제. 조합원들 상황이 안된 상황. 빈고 적립금 사용해서 종료처리.

마지막 활동일 오래 되었음.

공동체회원이용의 경우 고지가 잘 필요하지 않을까?

1) 공동체가 함께 리스크를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공동체에서 같이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2) 공동체에서 재정에 관해 서로 체킹하는 수준이 지속되면 좋겠음.

3) 이용신청시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등 내용이 텔방이나 계획서 낼때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

장기반환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할것인가?

4.빈고 이용활동 프로그램

전월세 전환률 변동으로 변경. 상한선을 8.4%로 하자는 상한선 낮추는 것.

은행이나 집주인에게 줄 이자를 빈고에 모은다 라는 원칙으로 하면 모두 8.4를 기준으로 상한을 맞춘다.라는 안.

출자지지금 탈퇴할때만 뺄수 있는데. 출자지지금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의 조합원.

빈쌈짓돈 출자자서비스 아닌가?

승인단위 조정 확인하고요.

이용활동관련 절차정리 필요함.